

양주시 새해설계

Yangju 경쟁력 있는 都市, 살기 좋은 양주시 建設



임 충 빈 양주시장

임충빈 양주시장은 2005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시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한 해례포부를 밝혔다.

지난 한해 '도시행정의 시작의 해'로서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양주시의 미래를 좌우할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덕계-고읍 간, 용암-상수간 도로의 개통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공사 재개, 검춘지방 산업단지의 완공과 입주, 경기북부 섬유기술연구지원센터 유치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들로 인해 내년의 제반 여건은 어렵지만 지역발전 과 시민들의 삶에 질 향상을 위해 '미래첨단도시의 초석'을 다지는 한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와 농축산물 개발에 대비한 '살기 좋은 농촌 가꾸기'에 초점을 맞추어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양주시의 장기비전과 전략 기틀 마련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2025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을

양주시는 2004년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함에 따라 2005년도에는 새로운 양주시 장기비전과 전략기틀마련, 첨단 신도시 개발사업, 도시기반과 자족기능 보강,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 살기좋은 농촌가꾸기를 위한 지산 지속시책운영, 문화관광벨트화 조성운영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본지는 2006년 양주시의 시장방향과 계획을 고찰함으로써 15만 양주시민의 희망찬 2006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특집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새롭게 수립하여 국내의 환경변화와 지역여건에 알맞는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차기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해 나갔으며, 양주발전 5개년 계획을 재정비하여 장기비전과 재정운영계획을 통합 조정함으로써 장기발전계획의 실천력을 높여 나갔었다.

실질적인 도시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하였으며, 기존에 추진중인 덕정2지구, 고읍지구, 가석지구는 실시계획과 보상협의를 마치고 공사를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중저밀도 개발과 환경친화적으로 건설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 말하고, 삼송지구

노선 66.9km 그리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18개 노선 48.1km를 시가형 도로망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내년도에 완공할 도로는 10개 노선 34.8km이며, 신규사업은 3개 노선 6.2km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전철역과 고속도로 I에 연결되는 보조 간선 도로가 체계적으로 건설되도록 추진하여 신도시개발과 관련된 상하수도는 물론 근거리직장과 일자리 창출,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장래에 필요한 1일 3만 5천톤을 추가로 확보하고 하수처리장 건설은 신전, 남방, 곡릉, 장흥, 기산 등에 1일 8만 5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각 5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2007년까지 신설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도록 하고 유망 중소기업에 운영자금 지원에 각종 택지개발과 시가지 확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아파트형 공간조성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우수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벤처단지 조성 후 전자, 컴퓨터 등 첨단업종을 적극 유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고

산업단지조성과 첨단 벤처기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태스크 포스(T/F) 팀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살기 좋은 농촌 가꾸기'를 위한 지산시책 운영

경기북부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과 양주축산물 도매시장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어려운 농촌경제를 위해서 고품질 양주쌀과 유기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법을 적극 지원하고 주말관광농원, 녹색체험마을 등 농외소득원 발굴과 농업 시범사업의 우수사례 파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우수한 먹거리 제공과 양주쌀 한우의 명품화를 위해 소문난 음식점 지정, 양주쌀 한우 갈비촌 육성을 추진하고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과 함께 우리지역 생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產地所) 시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 벨트화 조성 운영

문화관광자원의 발굴을 위해 대모산성, 보류성(고구려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관아지 주변의 문화유산 보존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의 산 교육장으



양주별신대



양주직거래장터

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양주별신대 4개 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관광벨트화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임충빈 양주시장은 양주시의 시장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한 양주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15만 양주시민과 6백여 공무원이 뜻을 함께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참여한다면, 양주시는 언제나 '살기 좋은 도시', '다함께 살자는 고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악산 등산로 정비, 회암사지 발굴 현장과 장흥관광지에 전문대, 민속박물관을 유치하여 관광지

이미지 개선은 물론 양주관아지와 4개 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관광벨트화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임충빈 양주시장은 양주시의 시장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한 양주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15만 양주시민과 6백여 공무원이 뜻을 함께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참여한다면, 양주시는 언제나 '살기 좋은 도시', '다함께 살자는 고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기자 paek1031@nate.com

새로운 양주시 장기비전과 전략기틀마련의 원년 첨단 신도시 개발사업 적극 추진

또한, 중장기 계획과 연계성 있는 지역개발에 세부과제를 집중 연구하여 합리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시정연구위원회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새로운 정책개발과 시정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양주발전방안의 논문모집을 적극 추진하여 전문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첨단 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방향

도시기본계획의 집행계획이며

아파트 단지 3천 6백 세대를 내년에 완공하여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건설 중인 민간아파트도 차질 없이 건설되리라 믿으며 건설한 시공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도시기반과 자족기능 보강 사업

수도권과 양주시의 대동맥을 잇고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지속추진과 평화로 우회도로의 부분개통을 추진 하고 국지도와 지방도 7개

며, 꿈나무도서관 건립을 비롯한 민간전문대, 유물전시관을 적극 유치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은 어떻게

어려운 지역경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인 육성산업을 선정하고 남면지구와 북암지구에서 57만평의 산업단지를 새로이 조성하여 5백여개 업체를 수용할 수 있



양주 꿈나무도서관 조감도

전기공사 및 소방설비(전기·기계)전문 공사업은 '고은종합전기' 에

■전기설비 고장발생시 긴급출동 후 보수작업

취급 공사

- ▶공장
- ▶APT
- ▶빌딩
- ▶병원
- ▶상가
- ▶호텔
- ▶가로등
- ▶기타 전기공사
- ▶소방설비공사



공장확장으로 인한 부하설비 증가로 특별 고압 자가용 수선설비 증설 공사 현장

고은종합전기는 오랜 경험과 풍부한 기술력으로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과학적인 설계와 완벽시공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 두 열 대표이사